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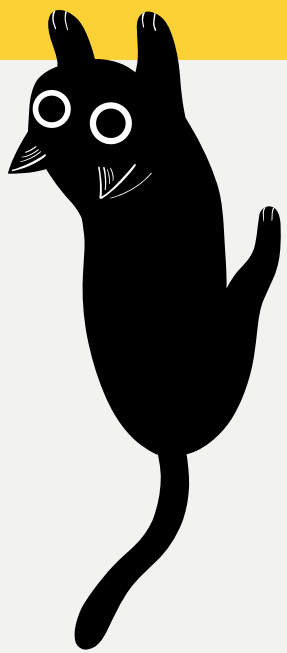
스토리 와 모먼트 의
오마카세



EP.03 2025.06

Young June

<증미역 이야기 맛집>



MENU

가장 신선한 제철 재료로
그때그때 요리합니다~~



Young Hero



응원해요 영림원!



Young Avengers

데이터로 보는
영림원



Young Challenger



With CEO



Young Contest



Hunting Cafe



Young Shot



Young Moment



After Story





영림원의 고객지킴이 '고객가치실현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

울퉁불퉁한 시골길 위로 '윙윙~' 소리를 내며 사륜 바이크 무리가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40명이 넘는 이들은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지니는 '전지형 차량(ATV)'을 타고 시골길을 누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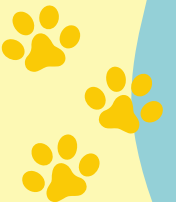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이들이 비상작전을 수행하듯 2개 조로 나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활동 후 모종의 회의까지 열고는 이내 대부도를 무대로 삼아 운동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날 대부도 일대에 나타난 이들은 바로 영림원소프트랩 고객가치실현팀 멤버들입니다.

팀을 이끄는 이지해님은 "혹시 모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ATV 야외활동을 2개 조로 나눠서 진행하고, 활동 후에는 서비스 점검회의까지 연 후 저녁 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고객가치실현팀은 영림원의 대들보이자 고객 지킴이입니다.



“ERP 창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활약이 시작돼요”



고객이 “종료” 할 때까지!!!
고객 감동을 빚어내는 42인의 ‘서비스 장인들’



ERP가 기업의 신경망이라면, 이 신경망이 끊기지 않도록 묵묵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과제나 문제가 생기면 등장하는 이들. 영림원의 숨은 영웅들이 모인 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RP가 진짜 숨을 쉬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기술이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본격적으로 숨을 쉬고 향기를 드러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고객이 ERP의 가치와 진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가치를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진짜 ERP의 시간’은 어쩌면 숨가쁜 구축작업이 끝나고 고객의 시스템에 ‘AS’ 버튼이 만들어지는 때가 아닐까요.

‘고객가치실현팀’은 바로 그때 영림원을 대표해서 고객과 마주하며 고객의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아줍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현장은 매일 전투죠”

이들은 영림원의 구축형 ERP를 도입한 고객사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지원합니다.

“사무실에선 조용해 보이지만, 현장은 매일이 사투의 연속입니다.”

42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고객 문의와 기술 요청에 대응합니다. 팀은 산업군과 역할에 따라 5개 하위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컨설턴트와 개발자들로 구성됩니다. 컨설턴트는 고객사의 문의와 운영 이슈를 실시간 응대하고, 개발자는 시스템 오류나 개선 요청, 추가 개발 사항을 직접 처리합니다. 필요 시에는 연구소와도 협업합니다.

고객의 문의에 가장 먼저 응답하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기에 이들의 업무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일이 쉽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이 커요. 힘들어도 고객이 ERP로 경영을 잘해내고 있다는 피드백 하나면 버틸 수 있지요. 고객이 우리의 진짜 동료라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고객가치실현팀이 빛나는 순간!

- ✓ 고객의 모든 불편 선제적 대응
- ✓ 프로젝트 종료 후 안정화 대응
- ✓ 패키지 패치 후 이슈 대응
- ✓ 구버전 이용 고객의 불편 지원
- ✓ 서비스포털 등 고객대응체계 개선

“하루에도 수백건...고객이 찾으면 끝까지 책임지죠”



고객과 영림원을 잇는 연결자들

이 팀의 또 다른 정체성은 고객과 내부 조직 간의 '연결자'입니다. 연구소 및 프로젝트 수행팀과의 협업은 일상입니다. 프로젝트 인수인계를 통해 고객사 맞춤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자료 누락을 예방하며, 혹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더 잘 하기 위해 프로젝트 인수인계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하거나, 고객 서비스 체계 개선을 적극 제안하기도 합니다.

때로 본사 내 타 부서와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팀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만족'입니다.

기술이 진화하고 고객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요구사항은 갈수록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기능이나 메뉴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훨씬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대응도 더 난해해졌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고객가치실현팀은 스스로를 단순한 서비스 조직이 아닌 '성장파트너'로 정의합니다. 고객이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가려운 부분을 찾아 긁어주는 '더 플러스 케어' 서비스를 내놓고 전담팀을 꾸린 것은 그런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고객사마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회도 찾을 수 있죠. 고객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장이기도 하고요."

ERP 구축이 끝난 후에도 고객은 예상치 못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고객가치실현팀은 해결사로 나섭니다.

그들의 하루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루 평균 200건 넘는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며, 컨설턴트는 결산 기간에는 하루 10건 이상, 평소에는 6건 이상의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개발자는 결산 기간에는 6건 이상, 평상시에는 4건 내외의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문제를 이해시키고 정확한 해결 방향을 안내하며, 때로는 컨설턴트와 개발자 사이, 고객과 본사 사이의 조율자 역할도 합니다.

"일하다 보면 고객에게 사과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이 일이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고객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최전선을 지키는 이들

떠들썩한 응원이 없어도 고객가치실현팀은 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고객과 영림원 모두 불면의 날들을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사의 문의가 쇄도하는 어느 평일 오전, 혹은 심야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 새로운 모듈 도입이나 패치 이후의 불안... 그 모든 순간에 고객가치실현팀이 있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팀원들을 서로서 격려하며 힘을 얻고 있어요."

“꿈꾸기에 늦은 시간은 없죠”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요? 영림 원소프트랩에는 그런 귀한 경험에 뛰어들 4인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주간 교육을 받고 ERP 컨설턴트로 변신한 시니어 컨설턴트 6기, 4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20~30 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일주일 되었네요. 부서별 업무 파악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어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6월 중순 프로젝트에 투입된 송현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RP 이용자에서 안내자로 옷을 갈아입은 송현호님은 "회의 내용을 잘 기록하고, PM님의 설명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서 "고객사마다 다양한 업무방식이 있는 것 같아 새롭고, 이 내용을 우리 ERP에 어떻게 녹여낼지 잘 익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정성식님은 "회사별로 다양한 생산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 패키지에 어떻게 구현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선 우리 패키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부지런히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은 치열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좋다는 정성식님은 "기업들의 보안 정책과 문화도 다양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6기 시니어 컨설턴트 중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 남익재님은 "우선 프로젝트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익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 단계 성장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이정수님은 "빨리 현장에 가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고객들의 경영 혁신을 돕고 싶다"면서 "그에 앞서 제안요청서(RFP)를 분석하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컨설턴트들의 이야기, 유튜브로도 만나보세요.

[HTTPS://YOUTUBE/AMZQWYQOOJA](https://youtu.be/AMZQWYQOOJA)



“PM은 능력자이자 슈퍼맨이어야 하죠”

그동안 도입된 적 없는 산업에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림원의 간판 컨설턴트 중 한명인 전략사업부 정순근님입니다. 그를 만나 PM의 세계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전략사업부 정순근님

“평소엔 MBTI가 99% I인데 프로젝트 할 땐 E로 바뀌죠. 그리고 J가 97%예요. 뭔가 하기 전,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우죠. ERP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영림원소프트랩 전략사업부 정순근님은 “PM은 능력자이자 슈퍼맨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영림원에 몸담고 있는 정순근님은 회사를 대표하는 컨설턴트 중 한명이자 사내 유일한 감리사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처음 맡으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 고객에게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가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프로젝트를 리드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회의 준비와 진행까지 철저한 프로 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전략사업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솔루션 파트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해요. 영림원의 귀재 김현주 상무가 부서를 총괄하죠. 6년 정도 됐는데 4개 파트너를 육성했고 작년과 올해 2곳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있어요. SAP나 오라클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원백 영업도 함께 하고요.”

Q.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건 뭔가요?

A. “철저한 계획 수립입니다.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하면 고객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죠.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게 회의예요.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이 짜임새 있게 이뤄져야 하죠.”



Q. 가장 기억나는 프로젝트는 뭔가요?

A. “2010년 전후 진행한 D농약회사 사업이에요. 이 업종의 첫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우리 ERP 신버전이 안정화가 덜 됐고 추가 개발도 많다 보니 매일 밤 12시 넘어 퇴근해야 했죠. 프로젝트 기간도 예정보다 길어졌고요. 이곳 담당자는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요. 어려움을 함께 하니 끈끈함이 생겼죠. 돌아보니 가장 고생한 프로젝트가 제일 보람 있는 프로젝트가 됐네요.”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A. “후배 컨설턴트들을 양성하는 게 꿈이에요. 성장하는 이들의 롤모델이 돼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어요. 컨설턴트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기술도 법제도도 계속 바뀌니 공부밖에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Q. 입사 20년이 다 돼 가는데 영림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입사 전 1년이 멀다 하고 회사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다닌 회사가 10곳 가까이 되죠. 그런데 영림원에선 20년이 다 돼 가네요. 일은 도전적이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게 영림원의 장점이지요. 가장 큰 매력이자 오래 다니는 이유는 바로 ‘원장님이 좋아서’죠.^^”



세계일류화 기반기술연구소 UXWG 한세진님



증미역 분위기 맛집 '영림원 카페 클라우드'.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기도 하지만 때로는 카페에서 업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음악과 향긋한 커피향은
덤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이들과의 약속되지 않은 깜짝 대
화는 공감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용자가 쓰기 편해야 좋은 디자인이죠”



“전 아이스 연잎차 마실게요.”

어느 오후 카페 클라우드에서 만난 기반기술연구소 UXWG 한세진님은 탄산음료처럼 청량한 표정과 쿨한 성격으로 깜짝 인터뷰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진짜 인터뷰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요즘 생활과 생각을 듣고 싶어요.”

“입사 1년, 영림원을 알아가고 있어요”



한세진님은 작년 7월 영림원에 입사한 UX 디자이너입니다. “대파 크래커를 먹어서 입냄새가 좀 날텐데”하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2015년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교육업체와 건축사무소를 거쳐 영림원에 합류했습니다.

매우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다른 유능한 분들이 많았을텐데 제가 운 좋게 된 것 같아요”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입사 후 기업문화 관련 업무와 KDC(개발자용 문서 사이트) 작업을 주로 하다 최근 ERP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은 UX 디자인에 대해 늘 고민해요”

어떤 것이 좋은 UX 디자인이냐를 묻는 질문에 한세진님은 “무조건 잘 보이고 편리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쓰기에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매몰되기 쉬워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 취향에 맞추기보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요.”



“AI시대, 기획력으로 승부해야죠”

AI 시대에 불안감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디자이너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기획에 초점을 두는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재 그는 AI를 이메일 다듬기와 HTML 코딩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메일 쓴 걸 보면 많이 부족한데 AI가 걸러주면 훨씬 나아요”라며 웃었습니다.

“AI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단기 목표는 AI를 잘 아는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고 프롬프트를 잘 주는 방법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봐요.”

“끈끈한 분위기의 팀원들에게서 많은 도움 받죠”

개인주의가 강한 회사를 다니다 영림원에 와 보니 정 반대였다는 한세진님은 “끈끈하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표 올리기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팀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말 큰 매력은 밥이 정말 맛있다는 거죠.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HOW?

Young Moment

“조직문화, 실패 없는 정답은 뭔가요?”

투자대비효과가 숫자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외면하는 순간, 기업의 문제 대응력과 장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오묘한 영역. 영림원과 고객이 함께 경영의 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인 '영림원 CEO포럼'.
6월의 키워드는 '조직문화'였습니다.



기업의 지구력과 회복력, 민첩성까지 결정하는 조직문화. 많은 이들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집어서 얘기하기 힘든 것이 조직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버려두는 순간, 조직은 어느새 뼈격대기 시작합니다.



한상엽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림원 CEO포럼에서 “조직문화가 좋으면 회사 성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 성과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종합적 결과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좋은 조직문화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돼 준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쥐어짜기로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조직문화가 안 좋은 기업은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죠.”

한 연구위원은 조직문화 개선을 ‘음치 탈출’에 비유했습니다. “음치인 이유는 소리를 못 내서가 아니라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해서예요. 반주 소리를 못 듣고 자기 소리만 내거나, 반주에 소리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음치 탈출의 출발점입니다.”

조직문화를 바꾸는 첫 단계는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좋은 조직문화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질소, 인산 등이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대로 못 크죠.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꾸준함이 필수죠. 구성원들이 합리적, 이성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조직문화는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해요. 조직문화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조직문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배나 동료의 압력입니다. 선배나 동료의 행동방식에서 은연중에 조직문화가 드러나죠. 이 압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상향 평준화 압력'이 중요해요.”

“조직에 많이 기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해요.”

WHAT?





영림인들의 구독 라이프는?

우리 영림인들은 어떤 구독 서비스를 즐기고 있을까요?
익명으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버레스크' 앱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구독 서비스 Top3



넷플릭스
(77.11%)

1

압도적인 64표(77.11%)를 획득하며 구독의 제왕 자리를 지킨 넷플릭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라는 질문에 단골로 나오는 그 이름답게,
넷플릭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영림인의 모습이 상상되네요.

유튜브 프리미엄
(56.63%)

2

광고 없는 세상, 백그라운드 재생의 자유!
커피 한 잔과 함께 '운동 루틴', '요리 레시피', '리뷰 영상'을 끊임없이 재생하며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길까지 종일 유튜브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실감하게 해줍니다.

쿠팡플레이
(39.76%)

3

쿠팡 와우 멤버십의 덤 같은 존재였던 쿠팡플레이가 당당히 3위에 올랐습니다.
축구 중계, 오리지널 예능, 그리고 '그분'이 나오는 드라마까지...
"어? 이거 쿠팡플레이에서 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죠.

🎧 음악 플랫폼도 다양해요!

- 유튜브 뮤직 (36.14%)
- 멜론 (12.05%)
- 애플 뮤직 (6.02%)
- 지니뮤직 / 스포티파이(2.41%)

출근길 BGM은 각자의 취향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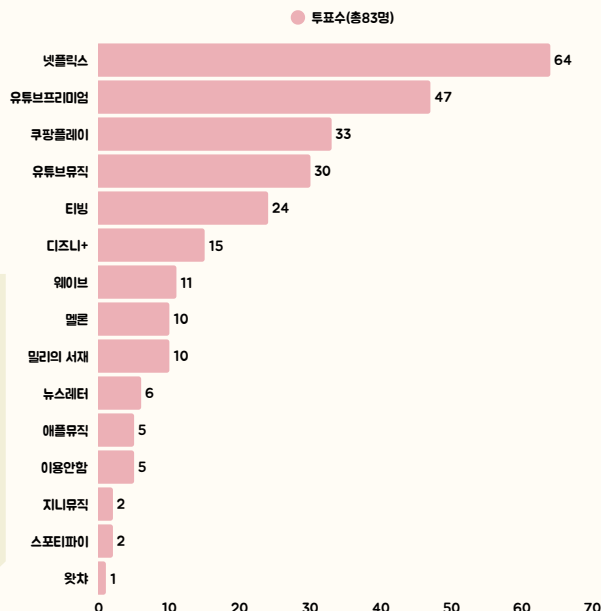
📺 다양한 영상 구독서비스

- 티빙 (28.92%)
- 디즈니+ (18.07%)
- 웨이브 (13.25%)
- 왓챠 (1.2%)

OTT 춘추전국시대, 다양한 서비스 이용중!

"구독은 취향이다."

오늘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모든 영림
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자기계발형 구독도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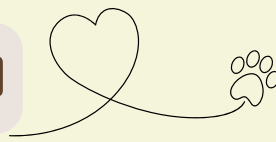
- 일리의 서재 (12.05%)
- 뉴스레터 (7.23%)

짧은 시간에 뚝뚝해지는 습관, 역시 영림인!

😲 그런데 이런 분들도?!

- 구독안함 (6.02%)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 분들의 선택
도 멋진 자율입니다!



“신념과 집념, 모든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밑바탕이죠”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

규모와 업종을 구분할 것 없이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부터 솔루션의 작동 방식, 일하는 방식까지 AI가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권영범님이 놓치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독서입니다. 어떤 기술이 와도 문화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권영범님이 들려준 6월의 이야기, 귀 기울여 보시죠.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다정한 부부 샷을 찍고 있는 권영범님.

→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Q. 얼마 전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A. “남부 유럽의 주요 도시를 둘러보며 어디를 가도 접할 수 있는 성당의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성당은 300년씩 걸려서 지었는데, 적어도 10세대 이상의 사람이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완성한 것이죠. 그런 문화유적이 있다 보니 후손들은 지금도 관광 수입으로 먹고살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19세기 말에 짓기 시작해 아직 미완성이지요.

A. “결국 모든 위대한 것은 근본적인 신념과 완성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내려면 근본적인 신념과 완성에 대한 집념을 계속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우침을 얻고 왔습니다.”

Q. 비슷한 맥락에서 파주에 짓고 있는 글로벌R&D센터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가 큼니다.

A. “글로벌R&D센터는 영림원의 다른 미래를 여는 영감과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무와 운동,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 활동이 짜임새 있게 들어설 것입니다. 인재 육성과 파견근무, 워크숍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고요. 7월초 Y-DAY에서 설명 시간을 가질 겁니다.”

Q. 올 여름 휴가 계획도 궁금합니다.

A. “매년 여름 8월 15일을 전후해 강원도 체스터튼스속초로 가족 나들이를 가요. 손주까지 전 가족이 함께 가서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내다 오지요. 그렇게 피서를 다녀오면 여름 한더위도 거의 끝나죠.”

이런데요, 영림원!!



영림원을 아끼고 응원하는
'Y치어러즈(Y-CHEERERS)'의 목소
리를 전합니다



허은영 작가님은 1995년부터 KBS, MBC, SBS 교양프로
그램 구성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OBS <전기현의 씨
네뮤직>, MBC <기분 좋은 날> 메인 작가이며, <생로병사
의 비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영림원을 직접 방문해서 구내식당과 카페 클라우드의 맛
과 분위기에 감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

수평적 조직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문화 혁신
을 꾀하는 영림원의 시도를 응원하고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걸맞게 보상하
면 직원들은 신나서 일하게 되죠.
저희 에어키도 전 직원의 호칭을 프로로 통일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나머지
시간은 늦게 출근하든, 일찍 퇴근하든 상관하지 않는
유연한 문화를 도입했어요. 또, 금요일 오후는 쉬어
도 주 5일 일한 것으로 인정하죠. 그 결과 생산성은
전혀 문제 없고 직원 만족도는 훨씬 올라갔어요.
유연한 기업문화의 장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국
내 기업들에 유연한 기업문화가 전파됐으면 합니다.
영림원의 시도를 응원합니다!

“영림원의 기업문화 혁신, 200% 공감해요!”

“

가족보다 훨씬 정감가는 말이 있죠. ‘식구’,
식구(食口)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 즉, 한술밥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술밥’이 맛
있고 영양까지 풍부하다면 그 식구들은 몸도 마음도
든든할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영림원에 자리한 아담하지만 정갈한 사
내식당에서 맛있는 한 끼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영림원이 펼치고 있는 사내 콘텐츠와 기업문화 활동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야기가 구성원들을 더 돈
독하게 이어주고 회사라는 큰 공동체를 함께 움직이
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영림원 '식구'들이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한
술밥을 나누며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따뜻한 기업문화의 선한 영향력 기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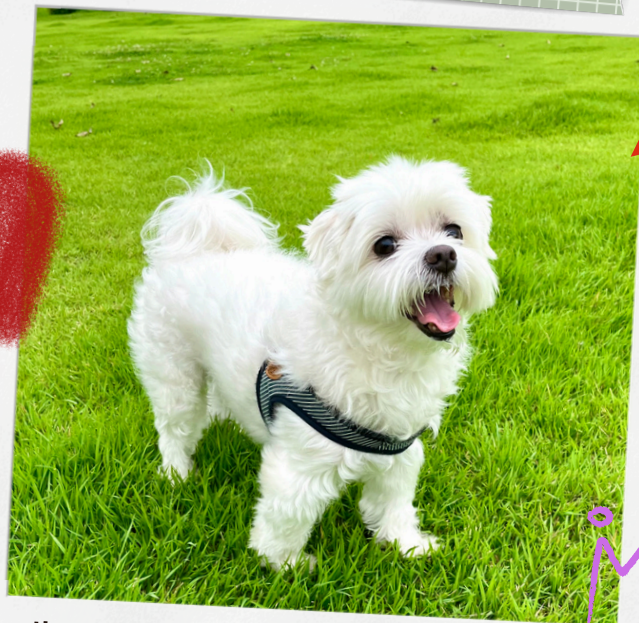
조태영 대표님은 데이콤, 시스코, 한국HP 등을 거쳐 에스
넷, 아리스타네트웍스코리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네트
워킹 솔루션 기업 에어키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4.5일 근
무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문화 혁신에 진심입니다.

2025 반려동물 콘테스트

심쿵주의보 발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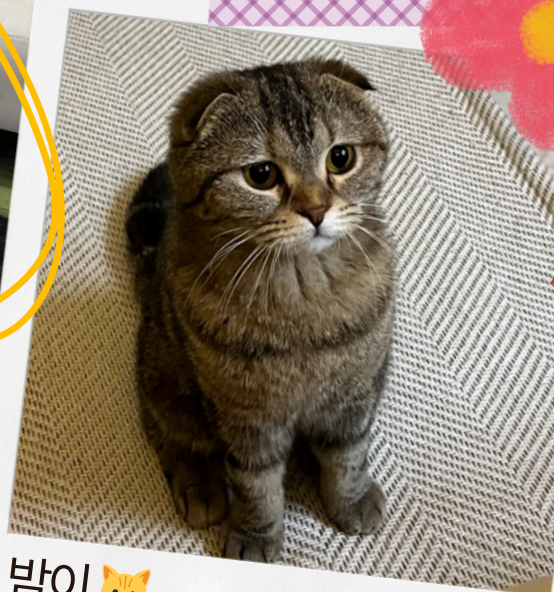
저희 집 막내의 이름은 예찌입니다! 초동만 10살 이
예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해서
아빠가 데려온 천사죠! 그래서 자연히 이름은 동생이
지었어요, 엷지라고.
그런데 저는 싫었어요 좀 귀엽고 찌는 이름을 지어주
고 싶는데 엷지라니ㅠㅈㅠ 그래서 제가 바꾸면 안되냐
고 2, 3주를 졸랐는데, 싫다고만 하다가 나중에 말해
주더라고요.

동생이랑 저랑 초중딩 때 프로레슬링을 같이 봤는데,
그때 같이 좋아한 선수 이름이 EDGE였고, 저희가 같
이 '우리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 이름 엷지라고 하자'
라고 했었대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나
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동생은 기
억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바꾸자고 안했어요ㅎㅎ
"대신, 엷지 말고 예찌 어때?" 했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래서 '예찌'예요. ㅎㅎ



예찌 🐶

BPO플랫폼사업팀 이제학



밤이 🐱

AIWG 김나영

밤이는 다섯 살 정도 된 고양이입니다. 🐱
약 3년 전, 길에 덩그러니 있는 걸 발견하고 주
인을 찾는 동안 임시 보호를 시작했는데, 두 달
이 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제가 입
양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중성화도 되어 있지 않았고, 유전질환
인 다낭성 신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은 약
을 먹으며 신장 수치를 관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전혀 낯가림 없이 먼저 다
가가 애교를 부리는 찐 개냥이고요, 매일 배를
까고 누워 있어서 살짝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
만, 부르면 착하게 오는 아주 사랑스러운 고양
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귀여움의 대호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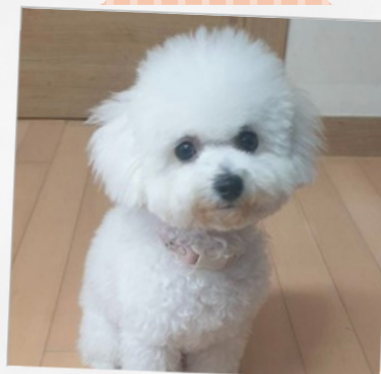
밍키 🐱

품질혁신단 문지현



마뱀이 🦎

품질혁신단 이국현



송송이 🐶

기업문화혁신사업부 이동건



브로미 🐶

기업문화혁신사업부 이남원



희동 🐶

마케팅팀 오지연



해리 🐶

고객가치고도화 변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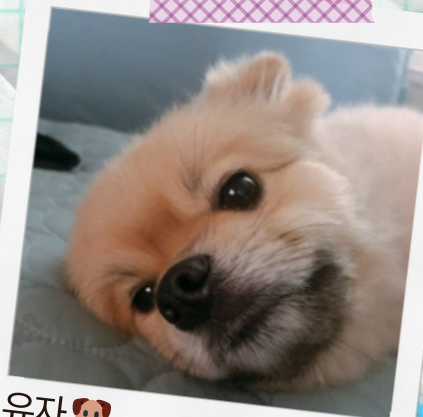
두릅이 🐶

고객가치실현 서혜민



그린 & 시나몬 🦜

공공사업부 임재혁



유자 🐶

사업코칭팀 이아윤

일상의 한 순간.
나누면 더 특별해집니다.

Young Shot

한순간에 담긴 표정에
행복이 저절로 묻어납니다.

공유로 더 특별해진 순간



고객가치실현 임수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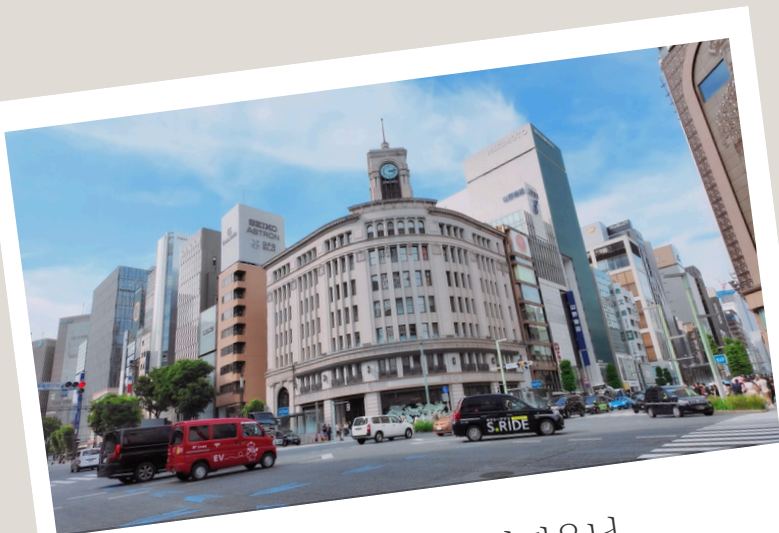
6월 초에는 제 생일이 있어 생일 겸 이른 여름휴가 겸 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전통의상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인데 찍으면서 모기는 많이 물렸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내봐요.
두번째 사진은 가족사진을 찍고 나와서, 마침 쿠타비치에 선셋이 지고있는게 너무 예뻐 찍고있는 모습이에요. 5세 아이와 함께한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라 수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즐겁게(?) 추억쌓기 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언제까지 발리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았던 기억이 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
가족사진에 남편은.... 그래도 초상권을 위하여 지브리 버전으로 가려보았습니다 ...ㅋㅋㅋ



따릉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지나가면서 건너편에 지하철 2호선 지나가던 그 순간, 뒤에 붙여져 있는 야경이 너무 예쁘고 반짝였어요.
저에게 서울 하면 제일 기억나는 곳은 한강 위에 있는 다리의 풍경들입니다.



아시아클라우드 심연님



HRM프로세스 강지은님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낮선 곳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잘 해내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사진은 도쿄 긴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긴자 와코' 건물 앞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고, 도쿄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제가 음식점에서 혼밥도 하고, 쇼핑도 하고, 도쿄타워에서 야경도 구경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즐기고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과정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도 기록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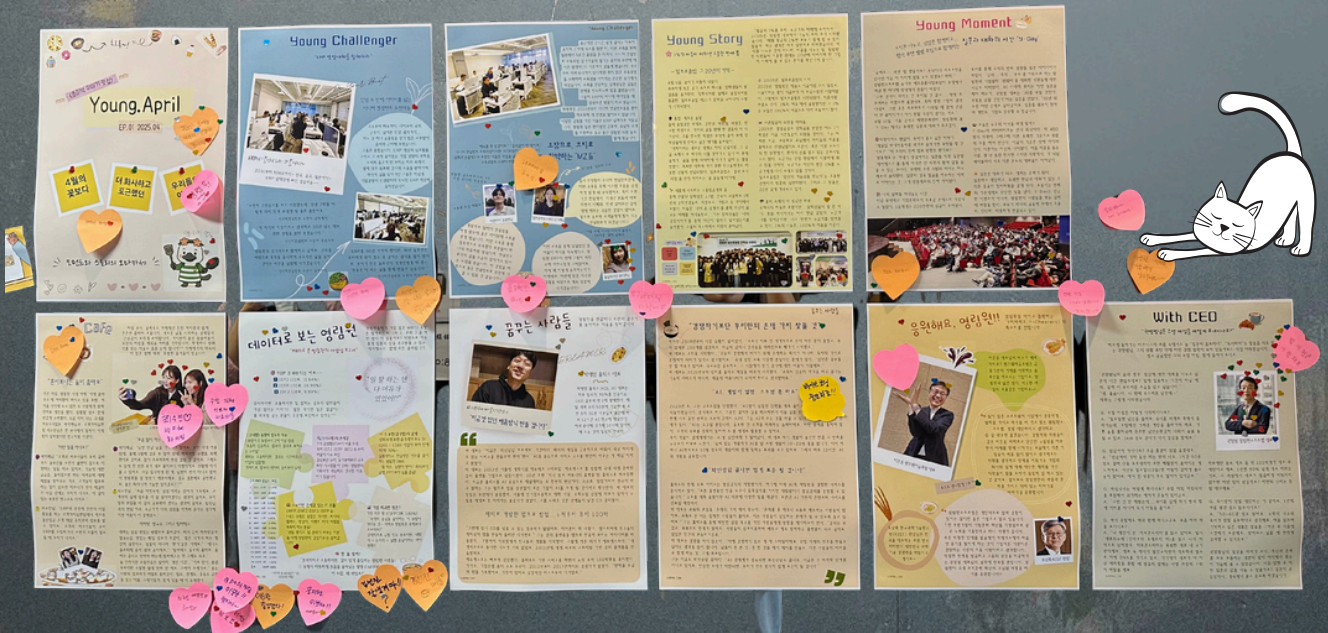


'카페 클라우드' 앞에 피어난 '포스트잇' 꽃들



소곤소곤, 두런두런...

영림원 사내 카페 '카페 클라우드' 앞을 지나다 멈춰 서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4월, 우리들의 첫 이야기, 'Young April'을 읽으며 미소 짓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이름과 얼굴에는 반짝이 스티커를 붙이고, 포스트잇에는 사연도 적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시니어 컨설턴트들을 응원하는 마음도 모였습니다.
댓글과 응원으로 우리의 마음 온도가 봄날 햇살처럼 따스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돌아보면 조금씩
의미 있는 일이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날
은 신나고, 어떤 날은 설레고, 또 어떤 날은 주저
하고...

언제쯤 마치 프로처럼 삶에 익숙해질까요? 그건
바람에 불과하겠지요?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서른 살 주인공 미지가
아침마다 하는 주문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는 끝
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부딪히고 도전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 콘텐츠실 안경애 naturean@

이번에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시
간이 되었고,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어 저희도 무
척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7월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
만, 남은 시간도 함께 힘차게, 즐겁게 달려나가 보
아요!

/ 콘텐츠실 조예솔 yscho@

6월을 보내며

2025년이라는 숫자가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졌
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올해 초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이루어가
고 계신가요?

'매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나아
가면 어느새 목표했던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
고 믿습니다. 저희 콘텐츠실도 여러분과 함께 꾸
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남은 2025년
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

/ 콘텐츠실 박정미 jmpark2303@

벌써 2025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소식지도 여름처럼 점점 더 활기차지고 있죠? ☀

이번 호는 영림인들이 함께한 콘테스트 덕분에
특히 더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Young Shot' 코너도 계속 열려 있습니
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한 컷,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7월에도 반가운 소식으로 다
시 찾아뵙겠습니다 😊

/ 콘텐츠실 최보인 bichoi@



© 2025 Young.June

기획·발행 | 영림원소프트랩 콘텐츠실

모든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
합니다.

www.ksystem.co.kr

